

“한일 해저터널 부산권 최대수혜”

파급효과 33조원... 광주·대구권도 성장잠재력 상승

허재완 교수 논문서 주장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개통될 경우 부산권의 성장잠재력 증가율이 34%에 달해 직·간접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광주권 대구권도 파급효과가 크고, 수도권은 가장 낮아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7일 '영불 해저터널의 건설효과 및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시사점 검토' 논문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부산-쓰시마-규슈' 루트를 거쳐 △철도·도로 병용으로 건설되고 △한국과 일본의 교통네트워크만 연계했을 경우 등을 가정해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

권의 성장잠재력은 33.7%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3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어 광주권의 성장잠재력은 23.6% 증가되고 대구권도 21.6%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전권은 10.1%, 서울권은 6.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한일 해저터널 파급효

과가 남부권에 집중된 것은 대규모 경제력을 가진 일본 대도시권과 가까워지면서 수도권 일극 위주의 공간구조 독점화 현상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허 교수는 밝혔다.

허 교수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종점인 영국보다 경유지인 프랑스의 생산유발효과가 더 컸다”면서 “한일 해저터널로 인해 일본 측의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물류와 사람들이 부산을 거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부산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brpark@kookje.co.kr

国際新聞 2007年2月28日

日韓海底トンネル 釜山圏最大受惠

朝鮮半島が統一されない状態で日韓海底トンネルが開通する場合、釜山圏の成長潜在力の増加率は34%に達し、直接・間接的に地域発展に大きな助けになると予想された。それと共に光州圏、大邱圏も波及効果が大きく、首都圏は最も低く、国土均衡発展に寄与するだろうという主張が提起された。

ホ・ジェワン中央大教授は27日「英仏海底トンネルの建設効果および日韓海底トンネル構想に対する示唆点の検討」という論文で△日韓海底トンネルが”釜山・対馬・九州”ルートを経て△鉄道・道路併用で建設され△韓国と日本の交通ネットワークのみ連絡する場合などを仮定し、空間的波及効果を分析した結果、釜山圏の成長潜在力は33.7%の増加を示すと推定した。これを金額に換算すると33兆6000億ウォンに達する。続いて光州圏の成長潜在力は23.6%増加し、大邱圏も21.6%高くなる効果があると予測した。反面、大田圏は10.1%、ソウル圏は6.2%の増加に止まると予測された。

このように日韓海底トンネルの波及効果が南部圏に集中するのは、大規模な経済力をもつ日本の大都市圏と近くなることにより、首都圏の一極主義の空間構造独占化現象が緩和されることによるものだとホ教授は明らかにした。

ホ教授は「ヨーロッパの場合、終点であるイギリスより経由地であるフランスの生産誘発効果がもっと大きかった」とし、「日韓海底トンネルによって日本側の利得のほうがもっと大きいだろうという心配もあるが、日本と中国の物流と人々が釜山を経るようになれば、最大受惠者は釜山圏になるとみられる」と話した。